

공익 대변인

James Lane (G)

저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평생 뉴욕시에서 살아온 주민입니다. 저는 플러싱에서 태어나고, 할렘에서 자랐으며, 헬즈키친에서 성숙기를 보내고, 지금은 파크슬로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혼자로서,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어린 자녀를 맡기고 있습니다. 23 이란 나이에 저는 암과 당뇨에 관련된 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2 살 때 제 부모님께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법률 때문에 제 원래 가족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의를 위해 정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본래 가족에 대해 알 권리를 부정하는 법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난 25 년간 저는 노조 및 기업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아 왔고, 여가에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운동가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저는 시 정부가 주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뒷거래로 저렴한 주거시설을 줄이고, 소방서 문을 닫고, 공립학교 지원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익 대변인 녹색당 후보로서 저는 주민들의 편에서 시장과 시 정부를 감시할 것입니다. 두 정당 시스템 밖에서 온 사람이 당선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